

##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 : 위협 요인을 중심으로

김은미\* · 정현주\*\* · 남수정\*\*\*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 위협 인식에 의해 형성되는지를 위협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23년 「불평등 공정성 국민인식 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협 인식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위협 인식이 클수록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적 위협 인식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체류 유형별로 이주민에 대한 태도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용성은 높은 반면, 외국국적동포, 미등록 이주아동, 난민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용 태도를 보였다. 지역사회 내 외국인 비율과 이주민에 대한 태도 간에는 지역 간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위협 인식은 지역사회 특성과 관계없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이 이주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천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주요어** 이주, 이주민, 이주민에 대한 태도, 통합위협이론, 위협 인식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 2093658).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1저자, 연세대, 공공문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kem7935@naver.com

\*\* 공동저자,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heonjoojung@yonsei.ac.kr

\*\*\* 교신저자,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수석연구원, sujung.nam@gmail.com

## 1. 서론

국경을 넘는 사람의 이동, 즉 국제이주는 가장 폭발력있는 사회경제적 이슈이자 정치적 이슈 중 하나이다. 한때 경제발전을 위해서 이주민 유입에 적극적으로 있던 국가들에서 부상하는 반이민 정서는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반이민 정서를 기반으로 이주 반대를 핵심 의제화한 극우 정당들이 많은 국가에서 지지를 얻고 있으며, 중도 우파 정당들 역시 이민에 대해 더욱 강경한 태도로 선회하고 있다. 이는 난민 유입과 분산 재배치를 둘러싼 EU 회원국 간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등 국제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민자의 나라였던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며, 2025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은 이러한 반이민 경향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심성은·허석재 2025).

이주의 정치에서 상대적으로 변방에 있었던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1990년대 중소제조업 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어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 이후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이주민은 빠르게 증가하였고, 한국 체류 외국인(단기 포함) 규모는 2021년 약 196만 명에서 2024년 약 265만 명으로 늘었다. 동기간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역시 3.79%에서 5.2%로 증가하였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 이러한 변화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민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서부터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국내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보는 입장,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제고한다는 입장에서 한국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킨다고 보는 입장까지 이주민에 대해 한국인은 매우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장주영 2021).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입장은 고정적이기보다는 유동적이며, 다양한 요인과 이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사건이나 이슈보다는 부정적인 이슈와 여론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2012년 조선족에 의한 내국인 살인사건, 영화와 미디어에 의한 부정적 이미지의 확대재생산이 개인적 범죄에 대한 혐오가 집단적 혐오나 위협 인식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면,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실제로는 난민지위신청자) 이슈는 전사회적으로 이주, 특히 이주의 한 형태인 난민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BBC뉴스 코리아 2018.07.01). 반면, 2021년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재집권으로 인해 다수의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한국으로 유입된 난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이 견지되었다(백일순 2022).

이렇듯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일관되고 구조적이기보다는 유동적이고 이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Denny and Green 2021). 즉, 이주민에 대한 정치적 제도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특정 맥락과 이슈, 이주민의 특성(국적, 지위 등)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이주민을 바라봄에 있어서 이들이 한국사회에 기여하는 가치보다는 선(先)주민이 인식하는 위협에 의해서 태도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민지선·김두섭 2013; 박서연 2019; 박효민 외 2016). 그렇다면, 한국인은 이주민에 대해 어떠한 “위협”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종류의 위협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주민으로부터 느끼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협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 사회는 2024년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이 5%를 넘어서면서 다문화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변화를 반영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차별점과 유사점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또한, 본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과 실제 거주지역(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이주민 비율과의 연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술적, 실천적 기여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자료, 가설, 변수 설정 등을 설명한 후, 제4장에서는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논한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 2. 이론적 배경

### 1) 이주민에 대한 태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마다 다양하게 측정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이주민 증가에 대한 태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문화적 수용성 등을 이주민에 대한 태도로 개념화하였다. 먼저 이주민 증가에 대한 태도는 주로 이주민의 유입 자체를 찬성하는가 또는 반대하는가, 이주민 유입의 확대를 지지하는가로 측정된다(Hainmueller and Hopkins 2014; Mayda 2006; Semyonov et al. 2006; 김기동·이재목 2018). 또한 이주민 유입에 대한 태도는 이민정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태도로 나타나기도 한다(임동진·박진경 2012).

두 번째로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이주민을 나와 어떤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논의한다. 단순한 우리나라 방문객, 국민, 직장동료, 가까운 이웃, 친구, 자녀의 배우자, 나의 배우자 순으로 가까운 사회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가정하에, 이주민에 대한 수용성을 이러한 순서대로 측정하는 보가더스(Bogardus) 척도가 일반적으로 활용된다.<sup>1</sup>

세 번째로 문화적 수용성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유입에 대한 지지, 관용적 태도 등을 이주민에 대한 태도로 보는 것으로, 특히 한국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며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기도 하였다(박서연 2019; 신동훈·양정은 2020; 전경숙 2021; 황정미 2010).<sup>2</sup>

이와 같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다양하게 논의된 이주민에 대한 태도 개념을 활용하여 종속변수

1 보가더스 척도는 196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서구의 특수한 맥락에 근거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이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논의되기도 한다(김석호 외 2013; 송유진 2013; 이재철 2017).

2 다문화수용성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 사회적 거리감, 국민정체성 등의 개념을 하위요소로 두는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논의되기도 한다(황정미 2010).

를 설정하고자 한다. 특히 이주민 유입에 대응하는 태도, 이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태도, 이주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는 모두 이주민에 대한 태도로 나타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이주민의 유입 자체에 대한 태도, 이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더 나아가 이주민을 위해 경제적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체류 유형별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이주민 집단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 2)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설명되고 있다. 개인이 이주민을 어떻게 인식하고 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지를 설명하는 이러한 논의들은 경제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문화·정체성 요인, 정치적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3</sup>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이주민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다(Hainmueller and Hopkins 2014). 특히, 경제적 자기 이익 가설(Economic self-interest hypothesis)과 사회경제적 우려 가설(Sociotropic concerns hypothesis)은 서로 다른 논리로 이주민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이로 인한 개인의 태도 형성을 설명한다.

경제적 자기 이익 가설은 이주민의 유입이 개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결정됨을 의미한다(Borjas 1999; Hainmueller and Hiscox 2010). 특히 이주민과의 일자리 경쟁은 저숙련 노동자 또는 실업 상태의 내국인들로 하여금 반이민 정서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

3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요인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이론적 논의는 경제적 요인과 관련된 가설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추가적인 논의는 Espenshade and Hempstead(1996), Hainmueller and Hopkins(2014)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Scheve and Slaughter 2001; Mayda 2006). 이주민이 노동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축소, 실업 증가, 임금 하락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우려 가설은 개인 수준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집합적 의미에서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collective economic impacts)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결정됨을 의미한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보다 공공 재정 부담 등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국가 경제가 악화된다고 인식할 때 반이민 정서가 증가한다는 것이다(Citrin et al. 1997; Cooray et al. 2018; Hainmueller and Hopkins 2014).<sup>4</sup> 이는 유입된 이주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더 많은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음으로써 이주민이 유입될수록 국가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Facchini and Mayda 2009).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 측면에서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것은 이론적 개념과 실증 검증 가능성 간의 괴리로 인해 분석에 있어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개인의 실제 경제적 상황과 경제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즉, 선주민과 이주민이 실제 일자리 경쟁을 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국가의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 선주민과 이주민의 일자리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반이민 정서 간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하고, 이주민과 노동 경쟁 관계에 있는 저숙련 노동자가 아닌 고학력자가 반이민 정서를 가지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하기도 한다(Citrin et al. 1997; Hainmueller and Hiscox 2010).

또한 객관적인 국가 경제 지표와 국민들의 인식 간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국민들은 국가경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언론 보도 또는 정치적 담론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경제 상황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Sniderman et al. 2004). 경제적 자기 이익

4 경제적 자기 이익과 관련된 논의를 노동시장 경쟁 가설(Labor Market Competition Hypothesis)로, 사회경제적 우려와 관련된 논의를 재정 부담 가설(Fiscal Burden Hypothesi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설과 사회경제적 우려 가설은 개인경제와 국가경제의 연관성으로 인해 두 가설 간 명확한 구별이 어렵다는 점 또한 실증분석에 있어 한계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제적 가설 외에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 형성과 관련하여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이 중요한 설명틀로 제시되어 왔다(Allport 1954; Pettigrew and Tropp 2006; 김찬중 2020; 전소희·김은서 2023). 그러나 접촉의 맥락과 조건이 다양함에도 이를 일관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접촉이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이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주민에 대한 태도 형성 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들은 집단 간 위협 이론(Intergroup Threat Theory)을 활용하였다(Stephan et al. 2009). 집단 간 위협 이론은 선주민들이 외부 집단에 의해 위협을 인지할수록 반이민 정서가 증가함을 설명한다(Quillian 1995; Semyonov et al. 2006; Hopkins, 2010). 크게 실질적 위협(realistic threat)과 상징적 위협(symbolic threat)으로 분류되는 데, 실질적 위협은 다시 노동 경쟁, 자원 경쟁, 안전에 대한 위협 등으로 나뉘고, 상징적 위협은 사회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대한 침해 위협, 정체성 위협 등으로 분류된다.

즉, 선주민들이 이주민에 의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위협을 느낄 때 외집단에 대한 반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집단 간 위협 이론은 여러 사회경제적 위협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각 요소를 독립적으로 측정하고 가설을 도출하여 실증분석의 가능성과 객관성을 높인다는 데 이론의 강점이 있다(Denny and Green, 2024).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통합위협이론을 재구성하여 가설을 도출하고 실증분석을 시도한다. 또한 외국인 인구 비율을 접촉가설의 대리변수(proxy)로 활용하여, 접촉가설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 3)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 선행연구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이주민 수용 규모에 대한 태도, 이주민에 대한 법적 권리 부여에 대한 태도,

다문화 수용성, 사회적 거리감, 이주민 차별 태도 등 여러 가지 종속변수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Denny and Green 2021). 일부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국민정체성 요인이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Chang 2019; Ha and Jang 2015; 장승진 2010). 특히 한국인은 오랜 기간 언어, 인종, 민족의 단일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높을수록 이주민과 다양한 문화의 유입을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정체성에 부정적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백정미·권정미 2019; 윤상우·김상돈 2010; 이자형·김경근 2012; 황정미 2010).

반면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연구들은 일자리 경쟁에 대한 우려,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불만족 등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Gouda and Song 2024). 한편, 한국에 유입되는 이주민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특성에 따라, 거주 지역의 외국인 밀집도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이주민으로부터의 위협을 더 크게 인식하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민지선·김두섭 2013; 박서연 2019; 박호민 외 2016).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정치적 성향, 종교 유무 등의 요인들은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민태은 2013; 송유진 2008; 장승진 2010; 황성식·김두섭 2020).

한국사회에 지속적으로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고,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가 사회통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실증분석은 학문적·실천적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주로 2020년 이전의 설문조사 자료를 실증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라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반영된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인이 느끼는 경제적 위협으로서 노동시장 경쟁 외에 복지 경쟁에 대한 인식을 실증분석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주민들이 유입되

는 일자리는 한국인 선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즉, 경제적 요인으로서 노동시장 경쟁보다는 증가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자원 경쟁의 심화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공적 자원에 대한 복지경쟁 인식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관준 2013).

셋째, 한국의 맥락을 고려하여 거주지역의 외국인 밀집도를 고려한 연구들은 주로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영향력을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이주민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이주민 규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출신국적에 따라 한국인의 태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으나 체류 유형별 태도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는 미흡하다(Denny and Green 2021; Ha et al. 2016; 민지선·김두섭 2013).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을 세대별로 살펴보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외국국적동포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아동 등 분류 가능한 유형별 이주민 집단에 대한 인식을 비교 분석한 연구는 미비하다(이단비·유민이 2025).

따라서 본 연구는 2023년에 수행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전체 이주민과 체류 유형별 이주민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또한 통합위협이론에 따라 위협의 유형을 경제적 위협, 사회적 위협, 문화적 위협으로 나누어 복지 경쟁 인식, 이주민의 범죄율에 대한 인식,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이주민 규모가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 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협 인식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한국은 고령 인구 증가와 노동력 부족 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 유입이 불가피한 상

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이 중요한 정책적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경제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문화적 동질성 요인, 정치적 요인 등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 한국인이 이주민에 대한 어떠한 위협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이 이주민 수용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위협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 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가설 설정

본 연구는 통합위험이론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협 인식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가설은 경제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주민 증가가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때,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들은 복지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외부 집단의 참여가 기존 구성원의 복지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Esses et al, 1998). 특히, 한국과 같이 복지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불안감이 더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주민이 복지 수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가 위협받는다 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 증가가 복지 자원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1: 이주민으로 인해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할수록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사회적 위협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주

민 증가가 치안 및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때,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기존 연구들은 이주민 증가와 범죄율 상승 간의 연관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강화하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한다. 특히, 미디어와 대중 담론이 이주민과 범죄의 연관성을 과장하여 보도하는 경우, 이는 집단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설진배·김혜원 2024). 한국 사회에서도 이주민 증가가 지역 사회의 안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존재하며, 이는 이주민을 사회적 불안정의 원인으로 보는 편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주민 증가가 범죄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가설 2: 이주민이 증가하면 범죄율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할수록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세 번째 가설은 문화적 위협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한국인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은 이주민에 대한 태도를 결정 짓는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개인일수록 외부 문화나 가치 체계를 자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Stephan et al, 2009).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인종적, 문화적 동질성을 중시했으며 이처럼 문화적 보수성이 강한 사회에서는 외부 문화와의 접촉이 기존의 전통적 가치 체계를 위협한다고 인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인종, 종교, 그리고 문화의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개인들은 이를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과 연결 지을 수 있다. 특히,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거부감은 '이주민이 사회에 동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과 연결되며, 이는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이주민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의 유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다.

위의 가설들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위협 인식과 태도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2)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2023년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한 「2023년 불평등·공정성 국민인식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위협 인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동 패널조사는 크게 두 개의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279개 설문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부문은 124개 문항으로 응답자의 배경을 묻는 문항을 포함, 불평등,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경제 및 소득, 교육, 건강과 의료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부문은 155개 문항으로 근로와 노동, 다문화와 개발원조, 정보와 기술 부문 그리고 사회 일반 인식 부문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 공정성 수준에 대한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조사에서 한국 거주 외국 이주민에 대한 인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위협 인식, 정책적 수용성 등을 포함하는 설문 문항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성인 남녀이며,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을 고려한 할당층화추출 방식을 적용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4,100명의 응답자가 포함되었으며, 응답자의 성별 구성은 여성 2,018명(49.21%), 남성 2,082명(50.78%)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 701명(17.1%), 30대 726명(17.7%), 40대 892명(21.8%), 50대 952명(23.2%), 60대 829명(20.2%)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26.9%(1,102명)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9%, 780명), 부산(6.4%, 263명)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주민을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체류 유형별 태도 차이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응답자들은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미등록 아동(불법체류자의 자녀), 난민,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이주민 유형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외국인주민 비율 데이터를 결합하여, 지역 내 이주민 거주 비율이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3) 변수 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로 이주민 유입, 법적 지위 부여, 경제적 지원의 세 가지 차원에서 측정되었다. 첫 번째로, 이주민 유입 태도는 “귀하는 외국 이주민에 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되었으며, 응답자는 “외국인의 유입을 막고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보전해야 한다(1점)”부터 “외국인 유입을 장려하여 다문화/다민족을 지향해야 한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두 번째로, 법적 지위 태도는 “귀하는 외국 이주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세 번째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는 “귀하는 외국 이주민 지원에 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과 “나는 외국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라는 응답 문항을 활용하였다. 법적지위 및 경제적 지위를 묻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는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독립변수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협 인식은 다음의 문항을 통해 측정했고 응답자는 세 개 요인 모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다. 우선 경제적 위협 인식은 한국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과 관련하여 “이주민으로 인해 한국인의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문항을 사용하였고, 사회적 위협 인식은 “이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화적 위협 인식은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는 문항을 역코

당하여, 다양성에 대한 수용이 낮을수록 문화적 동질성 훼손에 대한 거부감, 즉 문화적 위협 인식이 크다고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정치적 성향, 종교 유무 등의 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지역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별 외국인주민 현황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이주민 밀집도와 이주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실제 선주민

표 1. 변수의 측정

구분	변수	측정 문항	비고
종속 변수	이주민에 대한 태도	F3-1. 귀하는 외국 이주민에 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외국인의 유입을 막고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보전해야 한다(①) ~ 외국인 유입을 장려하여 다문화/다민족을 지향해야 한다(⑦)	
		F4-1. 귀하는 외국 이주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F8-3. 귀하는 외국 이주민 지원에 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나는 외국 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독립 변수	체류 유형별 이주민에 대한 태도	F4-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결혼이주민/외국인 근로자(단순 비숙련)/외국국적동포(조선족)/미등록 아동(불법체류자의 미성년 자녀)/난민/북한이탈주민 ①받아들일 수 없음 ②나의 이웃이 되는 것 ③나의 직장동료가 되는 것 ④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⑤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보가더스 척도
	경제적 위협	F1-4. 한국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과 관련하여 귀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 이주민을 위한 복지로 인하여 한국인의 복지혜택이 줄어들 것이다.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p>사회적 위협</p> <p>F1-3. 한국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과 관련하여 귀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 이주민이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p>										
	<p>문화적 위협</p> <p>F1-2. 한국사회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 이주민과 관련하여 귀하는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①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p>	역코딩									
통 제 변 수	<p>외국인 비율</p> <p>기초자치단체별 총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p>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p>성별</p> <p>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0=남자, 1=여자</p>										
	<p>연령</p> <p>SQ2-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만20-29세 ② 만30-39세 ③ 만40-49세 ④ 만50-59세 ⑤ 만60-69세</p>										
	<p>교육 수준</p> <p>SQ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p> <table border="1"> <tr> <td>① 무학</td> <td>② 초등학교 졸업</td> </tr> <tr> <td>③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포함)</td> <td>④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포함)</td> </tr> <tr> <td>⑤ 대학교 졸업 (전문대 포함)</td> <td>⑥ 대학원 졸업 이상</td> </tr> </table>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포함)	④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포함)	⑤ 대학교 졸업 (전문대 포함)	⑥ 대학원 졸업 이상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포함)	④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중퇴 포함)									
	⑤ 대학교 졸업 (전문대 포함)	⑥ 대학원 졸업 이상									
	<p>소득 수준</p> <p>SQ6.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세전월 평균 총수입은 2023년 기준 얼마 정도입니까?</p> <table border="1"> <tr> <td>① 월 200만 원 미만</td> <td>② 월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td> </tr> <tr> <td>③ 월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td> <td>④ 월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td> </tr> <tr> <td>⑤ 월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td> <td>⑥ 월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td> </tr> <tr> <td>⑦ 월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td> <td>⑧ 월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td> </tr> <tr> <td>⑨ 월 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td> <td>⑩ 월 1,000만 원 이상</td> </tr> </table>	① 월 200만 원 미만	② 월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③ 월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④ 월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⑤ 월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⑥ 월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⑦ 월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⑧ 월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⑨ 월 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⑩ 월 1,000만 원 이상
① 월 200만 원 미만	② 월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③ 월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④ 월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⑤ 월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⑥ 월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⑦ 월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⑧ 월 800만 원 이상~900만 원 미만										
⑨ 월 9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⑩ 월 1,000만 원 이상										
<p>정치적 성향</p> <p>H8. 귀하는 자신의 이념 성향이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보수적 ~ ⑦ 진보적</p>	역코딩										
<p>종교 유무</p> <p>SQ9.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0=① 무교 / 1=② 개신교③ 천주교 ④ 불교 ⑤ 기타</p>	더미 변수										

과 이주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단위에서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inal logistic regression)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순서형 범주 변수이므로, 독립변수와 선형 관계를 가정하는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LS) 보다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모든 응답자를 포함하는 기본 분석을 실시한 후,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비교하여 지역적 요인이 이주민 태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접촉 가설(contact hypothesis)과 위협 가설(threat hypothesis)의 작용 여부를 검토하였다.

## 4. 분석 결과

### 1) 기초통계분석

본 장에서는 종속변수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주요 독립변수인 위협 인식에 대한 기초적인 응답 패턴을 살펴본 후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로짓 회귀분석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표 2>는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표 3>은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등 주요 변수들의 설문 문항 항목별 응답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주민 유입 태도, 이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태도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56%로 가장 높다.

반면 이주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는 상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것

에 가깝게 나타난다. '이주민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라는 문항에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48.34%로 가장 많았으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3.22%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인 10.02%에 비해 약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인종적·문화적 다양성 확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주민을 법적 효력이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상징적 행위에 비해 물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제적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즉, 이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그들을 위해 세금을 더 내는 것에는 부정적이며 이를 통해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가치관뿐만 아니라 현실적, 물질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주민 유형별 태도를 살펴보면 결혼이민자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외국인근로자를 직장 동료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 비율 역시 47.22%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정부의 다문화 장려와 다문화 교육에 대한 긍정적 효과, 외국인근로자의 한국경제에 대한 기여 인식 등에서 기인할 수 있다(장승진 2010). 반면 외국국적동포, 미등록 이주아동, 난민 집단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각각 25.61%, 23.73%, 23.56%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유형별 이주민 집단에 대해 한국인의 수용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독립변수인 위협 인식에 대해서는 경제적 위협, 사회적 위협, 문화적 위협 모두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위협을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민의 유입으로 인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문항에 동의하는 사회적 위협 인식은 37.22%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 두 개의 응답을 합한 결과 약 46.44%로 경제적 위협과 문화적 위협보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위협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기술통계값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 변수	이주민에 대한 태도 1	4,100	4,499	1,410	1	7
	이주민에 대한 태도 2	4,100	3,180	.908	1	5

	이주민에 대한 태도 3	4,100	2,442	.981	1	5
	결혼이민자에 대한 태도	4,100	3,224	1,062	1	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태도	4,100	2,918	.872	1	5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태도	4,100	2,393	1,101	1	5
	미등록 아동에 대한 태도	4,100	2,332	1,061	1	5
	난민에 대한 태도	4,100	2,326	1,051	1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4,100	2,776	1,046	1	5
독립 변수	경제적 위협	4,100	3,287	.965	1	5
	사회적 위협	4,100	3,348	.937	1	5
	문화적 위협	4,100	3,176	.942	1	5
통제 변수	외국인주민 비율	4,100	4,450	2,892	0.8	18.6
	성별	4,100	.492	.500	0	1
	연령	4,100	3,118	1,374	1	5
	교육수준	4,100	4,865	.604	1	6
	소득수준	4,100	4,490	2,613	1	10
	정치적 성향	4,100	4,020	1,231	1	7
	종교 유무	4,100	.450	.498	0	1

표 3. 주요 변수 항목별 응답 비율

구분	변수	응답 항목별 응답 비율(단위: %)						합계	
		①	②	③	④	⑤	⑥		
중 속 변 수	이주민에 대한 태도 1	①외국인의 유입을 막고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보 전해야 한다	②	③	④	⑤	⑥	⑦외국인 유 입을 장려하 여 다문화/ 다민족을 지 향해야 한다	100
		3,34	5,39	10,27	29,46	27,71	15,49	7,80	
	이주민에 대한 태도 2	①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00
		4,34	10,83	35,49	44,56	4,78			
이주민에 대한 태도 3	①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00	
	5,49	33,22	48,34	10,02	2,93				
결혼 이주민	①받아들일 수 없음	②나의 이웃이 되는 것	③나의 직장동 료가 되는 것	④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⑤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00	
		2,22	27,26	28,68	28,02	13,32			

외국인 근로자	①받아들일 수 없음	②나의 이웃이 되는 것	③나의 직장동 료가 되는 것	④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⑤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00	
	4.56	25.32	47.22	19.49	3.41		
외국국적 동포	①받아들일 수 없음	②나의 이웃이 되는 것	③나의 직장동 료가 되는 것	④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⑤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00	
	25.61	29.32	28.41	13.41	3.24		
미등록 이동	①받아들일 수 없음	②나의 이웃이 되는 것	③나의 직장동 료가 되는 것	④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⑤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00	
	23.73	38.78	20.05	15.41	2.02		
난민 난민	①받아들일 수 없음	②나의 이웃이 되는 것	③나의 직장동 료가 되는 것	④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⑤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00	
	23.56	38.68	21.61	13.88	2.27		
북한 이탈주민	①받아들일 수 없음	②나의 이웃이 되는 것	③나의 직장동 료가 되는 것	④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	⑤나의 배우자가 되는 것	100	
	9.27	35.12	29.80	20.29	5.51		
독 립 변 수	경제적 위협	①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00
		2.85	18.49	35.05	34.29	9.32	
	사회적 위협	①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00
		2.49	15.88	35.20	37.22	9.22	
	문화적 위협	①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②동의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동의한다	⑤매우 동의한다	100
		3.22	19.15	42.76	26.51	8.37	

## 2) 로짓회귀분석

〈표 4〉는 이주민 유입 태도, 법적 지위에 대한 태도,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이주민에 대한 모든 태도에 있어 위협 인식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세 가지 위협 인식 중에서 문화적 위협 인식의 회귀계수 절댓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한국인의 인종적·문화적 동질성 훼손에 대한 두려움이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임을 추측

할 수 있다.<sup>5</sup>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국민정체성, 단일민족 정체성에서 크게 기인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도 일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Chang 2019; Ha and Jang 2015; 장승진 2010).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국민정체성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협 특히 복지재원에 대한 우려가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이주민에 대한 복지 지원으로 인해 한국인이 받는 복지 혜택이 줄어든다고 생각할수록 이주민에 대한 모든 태도에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확대, 고령 인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복지재원 부담에 대한 고려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다문화정책 도입 이후 다문화가정을 공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일부로 틀지어 왔고, 2018년 예멘 난민 입국 이슈,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슈, 중국인 등 특정 이주민 집단의 의료 보험 혜택 이슈 등 이주민에 대한 지원과 선주민에 대한 복지 혜택이 상충한다는 인식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설진배 2019; 임형백 2013).

이주민에 대한 태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밀집도에 따라 형성되기도 한다. 특히 이주민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맥락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가시성과 이주민과의 연계성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이주민에 대한 인식이 차별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민지선·김두섭 2013; 박서연 2019; 박효민 외 2016). 분석 결과, 이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일수록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의 비율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이주민 비율이 높을수록 이주민 유입 태도와 이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정적이다. 다만, 회귀계수 값이 다른 유의미한 영향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지역의 이주민 규모 자체의 영향 보다는 개인의

5 세 가지 종속변수는 각각 7점 척도(이주민 유입 태도) 및 5점 척도(법적 지위 태도, 경제적 지원 태도)로 측정되었으므로, 해석에 있어서 회귀계수의 상대적 크기 비교보다는 통계적 유의성과 영향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인구학적 요인이나 지역 내에서 위협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통계변수인 인구학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통계적 유의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전반적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주민을 법적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주민을 위한 경제적 지원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부정적인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정부로부터 받는 복지 혜택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추가적인 재원 부담은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종교 유무 요인의 경우 종속변수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인다.

〈표 5〉의 유형별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전체 이주민에 대한 태도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협 인식이 모든 유형의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일으키고 있다. 연령의 경우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수용성이 높은 반면,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수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상대적으로 더 개방적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국적동포 집단에 대한 한국사회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외국국적동포를 한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동질적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연령이 낮아질수록 외국국적동포를 다른 외국인과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영화 등에서 묘사되는 동포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성이 있다(이단비·유민이 2025).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수용성에 나이가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이주민 집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표 4. 이주민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분석\_전체

	(1) 이주민 유입 태도	(2) 법적 지위 태도	(3) 경제적 지원 태도
경제적 위협	-0.383*** (-9.85)	-0.558*** (-13.40)	-0.478*** (-11.94)
사회적 위협	-0.324*** (-8.12)	-0.385*** (-9.05)	-0.132*** (-3.24)
문화적 위협	-1.032*** (-28.42)	-0.945*** (-24.67)	-0.693*** (-19.28)
외국인비율	-0.0192** (-1.96)	-0.0193* (-1.86)	-0.0128 (-1.25)
성별	0.0296 (0.51)	-0.312*** (-5.06)	-0.315*** (-5.31)
연령	0.0892*** (4.17)	0.144*** (6.27)	0.128*** (5.78)
교육수준	0.202*** (4.18)	0.0273 (0.53)	0.0279 (0.56)
소득수준	0.0538*** (4.83)	0.0402*** (3.38)	-0.00859 (-0.75)
정치적 성향	0.0221 (0.90)	0.0710*** (2.78)	0.0445* (1.78)
종교 유무	-0.186*** (-3.14)	-0.0211 (-0.33)	0.247*** (4.06)
N	4100	4100	4100
R-sq	0.1189	0.1678	0.0968

\* p<0.1 \*\* p<0.05 \*\*\* p<0.01

표 5. 이주민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분석\_이주민 유형별

	(1) 결혼이민자	(2) 외국인근로자	(3) 외국국적동포	(4) 미등록 아동	(5) 난민	(6) 북한이탈주민
경제적 위협	-0.158*** (-4.14)	-0.179*** (-4.60)	-0.179*** (-4.65)	-0.163*** (-4.23)	-0.228*** (-5.90)	-0.214*** (-5.62)
사회적 위협	-0.217*** (-5.49)	-0.240*** (-5.92)	-0.404*** (-10.03)	-0.295*** (-7.42)	-0.346*** (-8.65)	-0.186*** (-4.71)

문화적 위협	-0.361*** (-10.76)	-0.443*** (-12.77)	-0.539*** (-15.78)	-0.456*** (-13.46)	-0.576*** (-16.65)	-0.336*** (-10.07)
외국인 비율	-0.0123 (-1.24)	-0.000906 (-0.09)	-0.00373 (-0.37)	-0.0129 (-1.28)	-0.0226** (-2.22)	-0.0112 (-1.11)
성별	-0.357*** (-6.13)	-0.395*** (-6.57)	-0.222*** (-3.79)	-0.190*** (-3.26)	-0.240*** (-4.08)	-0.449*** (-7.70)
연령	-0.177*** (-8.15)	-0.146*** (-6.53)	0.280*** (12.62)	-0.0555** (-2.56)	-0.0245 (-1.12)	-0.0538** (-2.50)
교육수준	0.331*** (6.72)	0.0986** (1.97)	0.157*** (3.23)	0.213*** (4.34)	0.123** (2.50)	0.119** (2.45)
소득수준	0.0202* (1.82)	-0.00589 (-0.51)	-0.0172 (-1.51)	-0.0114 (-1.02)	-0.0219* (-1.92)	0.00197 (0.18)
정치적 성향	0.0735*** (3.05)	0.0619** (2.51)	0.0620** (2.55)	0.0751*** (3.10)	0.0820*** (3.37)	0.0716*** (2.97)
종교 유무	-0.189*** (-3.18)	0.0133 (0.22)	0.0980 (1.63)	0.0792 (1.32)	0.155** (2.57)	0.0286 (0.48)
N	4100	4100	4100	4100	4100	4100
R-sq	0,0473	0,0525	0,0827	0,0498	0,0724	0,0373

\* p<0,1 \*\* p<0,05 \*\*\* p<0,01

〈표 6〉, 〈표 7〉, 〈표 8〉은 이주민이 적은 지역과 많은 지역으로 응답자 집단을 나누어 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각각 전국 평균 외국인주민 비율, 중위수 비율, 삼분위수 비율을 기준으로 기준 이하인 기초자치단체와 기준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를 나누어 분석하였다.<sup>6</sup> 분석 결과, 주요 독립변수인 위협 요인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이주민 비율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주민이 기준보다 많거나 적은 모든 지자체에서 위협 요인은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주민 규모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분석했을 때 위협 변수들의 영

6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외국인주민 비율은 약 4.95%이며, 중위수는 4.4%이다. 지역의 외국인주민 비율을 기준으로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외국인주민 비율이 가장 작은 기초자치단체는 그 비율이 0.8%~2.7%에 속하며 이러한 지역은 전체의 37.12%이다. 외국인주민 비율이 중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 비율이 2.8%~5% 사이에 속하며 이러한 지역은 전체의 31.85%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은 그 비율이 5.1%~18.6%로 나타나며 전체 지역의 31.02%가 해당된다.

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서, 지역의 이주민 규모에 관계없이 위협 인식은 일반적으로 이주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위협 인식 완화 노력이 이주민이 밀집된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아야 함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내 외국인비율 변수의 경우, 이주민 규모가 기준 이하인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주민 규모가 기준 이상인 집단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다민족/다문화 지향성과 이주민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분위수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이주민 규모가 작은 집단, 중간 집단, 큰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이주민 규모가 작은 집단에서 다민족/다문화 수용성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가 중간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고 다시 이주민 규모가 큰 집단에서 다민족/다문화 수용성과 이주민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에서 이주민 규모와 이주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가 비선형적이며,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과 위협가설(threat hypothesis)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6. 이주민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분석\_외국인비율에 따른 집단별(평균 기준)

	외국인비율 평균 이하 집단			외국인비율 평균 이상 집단		
	(1) 이주민 유입 태도	(2) 법적 지위 태도	(3) 경제적 지원 태도	(1) 이주민 유입 태도	(2) 법적 지위 태도	(3) 경제적 지원 태도
경제적 위협	-0.369*** (-7.71)	-0.520*** (-10.12)	-0.458*** (-9.27)	-0.412*** (-6.13)	-0.643*** (-8.97)	-0.518*** (-7.54)
사회적 위협	-0.310*** (-6.22)	-0.345*** (-6.51)	-0.101** (-2.00)	-0.355*** (-5.28)	-0.462*** (-6.42)	-0.186*** (-2.70)
문화적 위협	-1.031*** (-22.91)	-0.998*** (-20.71)	-0.656*** (-14.80)	-1.034*** (-16.67)	-0.852*** (-13.42)	-0.762*** (-12.31)
외국인 비율	-0.00912 (-0.23)	-0.0321 (-0.78)	-0.0411 (-1.03)	-0.0389** (-2.20)	-0.0533*** (-2.84)	-0.0147 (-0.79)
성별	-0.0508 (-0.72)	-0.404*** (-5.29)	-0.267*** (-3.65)	0.184* (1.86)	-0.141 (-1.34)	-0.424*** (-4.13)
연령	0.0553** (2.09)	0.118*** (4.14)	0.137*** (4.97)	0.154*** (4.23)	0.198*** (5.06)	0.119*** (3.16)
교육수준	0.177*** (2.96)	0.0173 (0.27)	0.0240 (0.39)	0.264*** (3.18)	0.0495 (0.56)	0.0163 (0.19)
소득수준	0.0572*** (4.15)	0.0466*** (3.16)	0.00486 (0.34)	0.0439** (2.31)	0.0247 (1.22)	-0.0361* (-1.83)
정치적 성향	0.0154 (0.51)	0.0727** (2.31)	0.0340 (1.11)	0.0330 (0.77)	0.0688 (1.57)	0.0637 (1.47)
종교 유무	-0.102 (-1.39)	0.0163 (0.21)	0.303*** (4.06)	-0.340*** (-3.31)	-0.0727 (-0.67)	0.140 (1.32)
N	2704	2704	2704	1396	1396	1396
R-sq	0.1135	0.1653	0.0876	0.1318	0.1786	0.1181

\* p&lt;0.1 \*\* p&lt;0.05 \*\*\* p&lt;0.01

표 7. 이주민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분석\_외국인비율에 따른 집단별(중위수 기준)

	외국인비율 중위수 이하 집단			외국인비율 중위수 이상 집단		
	(1) 이주민 유입 태도	(2) 법적 지위 태도	(3) 경제적 지원 태도	(1) 이주민 유입 태도	(2) 법적 지위 태도	(3) 경제적 지원 태도
경제적 위협	-0.372*** (-7.45)	-0.499*** (-9.32)	-0.464*** (-8.97)	-0.395*** (-6.33)	-0.656*** (-9.85)	-0.503*** (-7.90)
사회적 위협	-0.329*** (-6.30)	-0.364*** (-6.55)	-0.0969* (-1.82)	-0.326*** (-5.23)	-0.420*** (-6.32)	-0.180*** (-2.81)
문화적 위협	-1.037*** (-22.19)	-1.008*** (-20.05)	-0.665*** (-14.42)	-1.027*** (-17.69)	-0.858*** (-14.42)	-0.740*** (-12.84)
외국인 비율	-0.0467 (-0.98)	-0.0215 (-0.43)	-0.0671 (-1.38)	-0.0405** (-2.47)	-0.0387** (-2.22)	-0.0165 (-0.95)
성별	-0.0327 (-0.44)	-0.409*** (-5.13)	-0.272*** (-3.56)	0.122 (1.32)	-0.174* (-1.77)	-0.404*** (-4.23)
연령	0.0544** (1.97)	0.116*** (3.91)	0.135*** (4.71)	0.143*** (4.18)	0.189*** (5.19)	0.124*** (3.50)
교육수준	0.181*** (2.88)	0.0382 (0.57)	0.0418 (0.65)	0.245*** (3.19)	0.0139 (0.17)	-0.00261 (-0.03)
소득수준	0.0557*** (3.87)	0.0452*** (2.94)	0.00379 (0.26)	0.0477*** (2.70)	0.0317* (1.68)	-0.0312* (-1.70)
정치적 성향	0.0110 (0.35)	0.0798** (2.42)	0.0467 (1.45)	0.0386 (0.98)	0.0578 (1.43)	0.0391 (0.98)
종교 유무	-0.0790 (-1.04)	0.00218 (0.03)	0.351*** (4.53)	-0.348*** (-3.64)	-0.0487 (-0.48)	0.0795 (0.81)
N	2499	2499	2499	1601	1601	1601
R-sq	0.1180	0.1677	0.0904	0.1226	0.1723	0.1101

\* p<0.1 \*\* p<0.05 \*\*\* p<0.01

표 8. 이주민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분석\_외국인비율에 따른 집단별(삼분위수 기준)

	외국인비율 낮은 집단			외국인비율 중간 집단			외국인비율 높은 집단		
	(1) 이주민 유입 태도	(2) 법적 지위 태도	(3) 경제적 지원 태도	(1) 이주민 유입 태도	(2) 법적 지위 태도	(3) 경제적 지원 태도	(1) 이주민 유입 태도	(2) 법적 지위 태도	(3) 경제적 지원 태도
경제적 위험	-0.398** (-7.18)	-0.547** (-9.17)	-0.485** (-8.45)	-0.255** (-3.16)	-0.538** (-6.33)	-0.435** (-5.27)	-0.467** (-6.20)	-0.609** (-7.53)	-0.505** (-6.54)
사회적 위험	-0.311** (-5.45)	-0.339** (-5.60)	-0.0828 (-1.43)	-0.365** (-4.21)	-0.307** (-3.36)	-0.186** (-2.11)	-0.312** (-4.19)	-0.508** (-6.35)	-0.161** (-2.11)
문화적 위험	-1.053** (-20.26)	-1.029** (-18.45)	-0.683** (-13.30)	-1.005** (-12.84)	-0.956** (-11.42)	-0.653** (-8.47)	-1.010** (-14.92)	-0.818** (-11.90)	-0.738** (-10.99)
외국인비율	-0.163** (-2.35)	-0.0319 (-0.43)	-0.0519 (-0.73)	0.0372 (0.40)	0.160 (1.62)	0.0991 (1.03)	-0.0462** (-2.39)	-0.0471** (-2.30)	-0.0183 (-0.90)
성별	-0.0936 (-1.14)	-0.389** (-4.39)	-0.273** (-3.23)	0.139 (1.14)	-0.350** (-2.68)	-0.338** (-2.67)	0.126 (1.16)	-0.162 (-1.40)	-0.400** (-3.55)
연령	0.0652** (2.12)	0.129** (3.89)	0.146** (4.56)	0.0692 (1.51)	0.113** (2.32)	0.124** (2.63)	0.147** (3.67)	0.198** (4.62)	0.111** (2.70)
교육수준	0.178** (2.57)	0.0602 (0.81)	0.0949 (1.33)	0.215** (2.06)	-0.0125 (-0.11)	-0.0909 (-0.85)	0.251** (2.76)	0.0308 (0.32)	0.00915 (0.10)
소득수준	0.0609** (3.79)	0.0420** (2.45)	0.0000167 (0.00)	0.0722** (3.07)	0.0595** (2.35)	0.00956 (0.40)	0.0238 (1.15)	0.0210 (0.95)	-0.0436** (-2.03)
정치적 성향	0.0420 (1.20)	0.0771** (2.10)	0.0482 (1.36)	-0.0603 (-1.18)	0.0630 (1.18)	0.00583 (0.11)	0.0633 (1.35)	0.0722 (1.51)	0.0707 (1.49)
종교유무	-0.100 (-1.19)	0.0273 (0.30)	0.404** (4.67)	-0.281** (-2.19)	-0.125 (-0.92)	0.114 (0.87)	-0.257** (-2.31)	0.00162 (0.01)	0.0783 (0.68)
N	2033	2033	2033	902	902	902	1165	1165	1165
R-sq	0.1211	0.1705	0.0932	0.1047	0.1596	0.0895	0.1323	0.1768	0.1138

\* p<0.1 \*\* p<0.05 \*\*\* p<0.01

## 5. 결론

국제이주는 유입국과 송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이들 간 관계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이러한 변화와 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다양한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제송금으로 송출국의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낮은 노동임금으로는 유입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 사이의 균형점은 빠르게 후자 우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유입국의 경제 침체와 불평등 증대, 문화적 포용성 저하 등으로 인해 유럽을 위시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이민 정서는 국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으로부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 범죄, 예멘 난민 사태 등으로 인해서 반이민 정서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이주민의 유형에 따라 한국인의 태도가 다르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깊숙이 각인된 불변의 것이 아니라 변화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본 연구가 활용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를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 외국국적동포, 미등록 이주아동, 난민집단에 대한 수용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이주민을 다양한 위협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한국인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민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다양한 태도—유입에 대한 태도, 법적 지위에 대한 태도,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협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위협으로 구분하였을 때, 이주민을 문화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과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가장 강하게 연계되었다. 그리고, 경제적 위협 인식 역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계되었는데, 이를 통해 내국인과 이주민이 제한된 복지 재원을 둘러싸고 경쟁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많은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변수의 관계가 허위적(spurious)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주민과의 과도한 잦은 접촉이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을 해야하는 집단으로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Pettigrew and Tropp 2006; 김찬중 2020; 전소희·김은서 2023). 이주민의 규모를 세부적으로 나눠 추가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주민 규모와 이주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는 비선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접촉가설과 위협가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본 연구의 실증 분석만으로 그 영향을 단정 짓기는 어려우며 후속 연구를 통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주민의 특성—나이, 인종, 국적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고, 응답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이주민 규모만을 확인하여 실제 이주민과의 접촉 빈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침체, 보호무역주의 발호 등 이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커질 가능성이 큰 시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는 점과 독립변수인 이주민에 대해 느끼는 위협과 종속변수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 모두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이주민이 얼마나 거주하는가가 이러한 위협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즉,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무관심의 결과라기보다 경제적 자원 배분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위협 인식, 사회적 거리감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형성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이고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통합적 다문화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교신: 남수정(한국행정연구원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수석연구원)(sujung.nam@gmail.com)

Correspondence: Su Jung Nam (Principal Researcher, Center for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sujung.nam@gmail.com)

2025.04.18 접수, 2025.04.29 심사, 2025.05.26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김기동·이재목, 2018, SNS 사용과 이민자에 대한 태도: 사회적 자본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 논의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1(3), 1-37.
- 김석호 외, 2013, 지식공간이론을 이용한 사회적 거리감 척도의 한국사회에서의 적용가능성, 한국인구학, 36(1), 1-20.
- 김찬중, 2020, 외국인 이주민 관련 긍정적 뉴스 보도가 부정적 태도 감소에 미치는 효과: 준사회적 접촉과 대리 접촉 이론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7(2), 50-92.
- 김관준, 2013,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기여에 관한 고찰, 현대사회와 다문화, 3(2), 207-237.
- 김현숙·최여진, 2023, MZ 세대의 다문화가족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8(2), 45-69.
- 민지선·김두섭, 2013, 거주지역의 외국인 비중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4), 71-94.
- 민태은, 2013, 상징정치이론과 경제이익이론으로 본 한국인의 이민자 태도, 국제정치논총, 53(2), 215-247.
- 박서연, 2019, 국민정체성과 위협의식,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35(1), 19-31.
- 박효민 외, 2016, 이주민 주거 밀집지역 내 내국인 인식 연구, 한국정당학회보, 15(2), 105-138.
- 백일순, 2022, 이동통치의 관점에서 본 난민 담론의 형성과 변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관한 국내 신문 기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34(2), 151-169.
- 백정미·권정미, 2019,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수원시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3(3), 117-147.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 2025년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69/subview.do>.
- 설진배, 2019, 한국사회의 다문화화와 다문화정책 방향, 한국정책논집, 19(1), 47-62.
- 설진배·김혜원, 2024, 언론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재한 중국동포 (조선족)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계층의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7(2), 111-133.
- 송유진, 2008, 한국, 대만, 일본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한국인구학, 31(2), 1-20.
- 송유진, 2013,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외국인 수용정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3), 1-19.
- 신동훈·양경은, 2020, 일상 속 이주민 목격과 대중매체의 이주민 재현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46(1), 111-139.
- 심성은·허석재, 2025, 제2기 트럼프 정부의 대(對)유럽 전략과 유럽의 민주주의 위기, 이슈와

- 논점, (2332), 국회입법조사처.
- 윤상우·김상돈, 2010, 사회병리적 Agenda: 사회적 가치관이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6(1), 91-117.
- 이단비·유민이, 2025,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세대 간 차이와 정보매체 활용을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8(4), 145-170.
- 이자형·김경근, 2012,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교육수준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22(3), 163-192.
- 이재철, 2017, 사회자본과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및 인식 분석, *정치정보연구*, 20(2), 275-304.
- 임동진·박진경, 2012,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참여자들의 태도와 성향 분석: 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공무원, 민간사업자,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6(2), 29-62.
- 장승진, 2010, 다문화주의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 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해관계와 국가 정체성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4(3), 97-119.
- 장주영, 2021, 한국인의 이민정책에 대한 태도, Issue Brief, 2021-03, 이민정책연구원.
- 전경숙, 2021,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19), 309-368.
- 전소희·김은서, 2023, 한국인의 다문화수용성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외국 이주민과의 직·간접 접촉경험과 다문화교육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4(2), 179-206.
- 행정안전부, 2024,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 황성식·김두섭, 2020, 교육수준, 직업 및 지역에 따른 이민자 수용태도의 편차: 규범의식과 현실위협인식의 효과, *한국인구학*, 43(2), 1-26.
- 황정미, 2010, 한국인의 다문화 수용성 분석: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새로운 성원권의 정치학(politics of membership) 관점에서, *아세아연구*, 53(4), 152-184.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Addison-Wesley.
- BBC뉴스 코리아, 2018.07.01, 제주 예멘: 난민 둘러싼 찬·반 여론 갈등으로 확대 우려, <https://www.bbc.com/korean/news-44672142>(검색일: 2025.01.20).
- Borjas, G. J., 1999, The economic analysis of immigratio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3, 1697-1760.
- Chang, H. I., 2019,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2), 190-210.
- Citrin, J., et al., 1997, Public opinion toward immigration reform: The role of economic

- motiva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59(3), 858-881.
- Cooray, A. et al., 2018, Public opinion and immigration: who favours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immigrants?. *International Migration*, 56(6), 5-23.
- Denney, S. and C. Green, 2021, Who should be admitted? Conjoint analysis of South Korean attitudes toward immigrants. *Ethnicities*, 21(1), 120-145.
- Denney, S. and C. Green, 2024, Public attitudes towards co-ethnic migrant integration: evidence from South Kore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50(8), 1998-2022.
- Esses, V. M. et al., 1998, Intergroup competition and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nd immigration: An instrumental model of group conflict. *Journal of social issues*, 54(4), 699-724.
- Facchini, G. and A. M. Mayda, 2009, Does the welfare state affect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Evidence across countr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1(2), 295-314.
- Gouda, M. and J. Song, 2024, The Determinants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Immigrants in South Korea(No. 11354). CESifo Working Paper.
- Ha, S. E., and S. J. Jang, 2015, Immigration, threat perception, and national identity: Evidence from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44, 53-62.
- Ha, S. E. et al., 2016, Group cues and public opposition to immigra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in South Kore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42(1), 136-149.
- Hainmueller, J. and M. J. Hiscox, 2010, Attitudes toward highly skilled and low-skilled immigra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1), 61-84.
- Hainmueller, J. and D. J. Hopkins, 2014, Public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7(1), 225-249.
- Hopkins, D. J., 2010, Politicized places: Explaining where and when immigrants provoke local oppos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4(1), 40-60.
- Mayda, A. M., 2006, Who is against immigrat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of individual attitudes toward immigrant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3), 510-530.
- Pettigrew, T. F. and L. R. Tropp, 2006, A meta-analytic test of intergroup contact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5), 751-783.
- Quillian, L., 1995, Prejudice as a response to perceived group threat: Population com-

- position and anti-immigrant and racial prejudice in Europ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6-611.
- Scheve, K. F., and M. J. Slaughter, 2001, Labor market competition and individual preferences over immigration policy.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3(1), 133-145.
- Semyonov, M. et al., 2006, The rise of anti-foreigner sentiment in European societies, 1988-200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3), 426-449.
- Sniderman, P. M. et al., 2004, Predisposing factors and situational triggers: Exclusionary reactions to immigrant minor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1), 35-49.
- Stephan, W. G. et al., 2009, Intergroup Threat Theory. In T. D. Nelson(Ed.),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2nd ed.), Psychology Press, , 255-278.

## **Korean's Attitudes toward Migrants : Focusing on Perceived Threat Factors**

Eun Mi Kim\* · Heon Joo Jung\*\* · Su Jung Nam\*\*\*

**Abstract**\_This study examines how Koreans' attitudes toward immigrants are shaped by perceived threats, based on threat theory. Utilizing data from the 2023 National Panel Survey on Inequality and Fairness, we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hreat perceptions on attitudes toward immigrants. The findings reveal that higher levels of perceived threat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more negative attitudes, with cultural threat perception exerting the most substantial influence. Attitudes also vary by immigrant type: acceptance is higher for marriage migrants and foreign workers, but lower for ethnic Koreans from abroad,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and refugees. There were observable regional differences in attitudes toward immigrants depending on the proportion of foreign residents, although these differences were not consistently linear. Threat perceptions, however, showed a consistent affect attitudes regardless of regional context. This study contributes important empirical and policy insights into how perceived threats shape immigrant acceptance in Korea's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Keywords**\_Migration, Immigrants, Attitudes Toward Immigrants, Threat Theory, Threat Perception

---

\* First author, Yonsei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kem7935@naver.com

\*\* Co-Author,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rofessor, heonjoojung@yonsei.ac.kr

\*\*\* Corresponding author,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Center for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Principal Researcher, sujung.nam@gmail.com